

BBS불교방송 하반기 개편

7일부터, '소통 강화' 목표

BBS불교방송이 연말을 맞아 라디오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12월 7일부터 라디오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재편성하는 등 개편을 단행했다. '치유와 존중의 BBS TV와 라디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불교방송은 '생방송 확대를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세단장했다. 우선 오전 시간대 정시 5분 뉴스를 폐지하고 새벽 6시 불교전문 뉴스를 신설했다. 또한 라디오 황금시간대인 오전 4~7시, 우리말 금강경, 아침예불, 도립스님의 경전공부에 이어 '불교전문 아이드 뉴스(30분)'와 '원옥 스님의 화엄경 불교 강좌'(월~일 06:30~06:50)를 새로 편성, 불자들의 공부·신행 시간을 강화했다.

또 '월호 스님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시즌 2를 오전 10시(월~목)에 방송하고, 정병주 동국대 명예교수를 '무명을 밝히고'(월~일 17:05~18:00) 새 진행자로 기용했다. 이와 함께 '고한우 세리의 유쾌한 가요쇼'(월~금 12:15~14:00)와 '주병선의 추억의 음악다방'(월~금 21:05~22:00) 등 음악프로그램도 대폭 늘렸다. 이외에도 '이효주의 2시를 부탁해' '김형기의 밤으로의 여행' '지수 스님의 세상사는 이야기' '정준영의 뮤직앨범' 등도 편성했다.

김주일 기자

좋은 벗 풍경소리

20주년 붓다콘서트

17일, 우순실 등 출연

1995년 12월부터 찬불동요와 찬불가 제작·보급에 힘써 온 좋은 벗 풍경소리가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는 음악회가 마련된다.

좋은 벗 풍경소리(회장 덕신 스님)는 12월 17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좋은 벗 풍경소리 창립 20주년 기념 붓다콘서트'를 연다. 20주년 기념 붓다콘서트에는 풍경소리 1집앨범부터 이번에 발매한 41집까지 모두 참여한 '꼬마풍경'을 비롯해 소리달 중창단, 소프라노 정영 스님, 테너 허철영, 중창단 소리마루, 풍경소리 홍보대사인 가수 우순실 씨 등이 출연한다. 풍경소리는 또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풍경소리 41집을 발매했다. 이번 앨범에는 풍경소리 초창기의 노래(1집~5집) 중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들과 새롭게 편곡한 곡들을 수록돼 있다. (02)723-9836 김주일 기자

“종단 사회 참여, 전문적 가이드 라인 필요”

한상균 조계사 피신 24일 무엇을 남겼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 10일 자진 출두 방식으로 조계사 일주문을 나서면서 일련의 사태들이 큰 충동 없이 마무리됐다. 지난 11월 16일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을 요청한 지 24일만이다.

숨 가뻔했던 24일 동안 가장 빛났던 것은 화쟁 사상을 기반으로 한 조계종의 대화와 중재 노력이었다. 일단 부처님 품안으로 들어온 사회적 약자를 여러 어려움, 불편을 인내하면서 최대한 보호하려했던 것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실제,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12월 5일 열린 제2차 민주총궐기대회를 평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경찰을 오가며 중재를 했고, 종교인들이 참여하는 '평화의 꽃길 기도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협상 테이블을 정치권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12월 10일에도 한 위원장의 자진 출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총무기 및 산하단체, 조계사의 종무원들이 인간띠를 형성해 보호했다.

한 때는 SNS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던 한 위원장이 조계사를 나서며 가진 마지막 기자회견에 앞서 "부처님의

자비의 품에 2000만 노동자의 처지를 의탁한 24일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한 이유도 불교계의 노력에 동감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력에 대해서 종단 안팎으로는 긍정적 평가 여론이 높다. 실천불교전국승

불교계 일련 대화 노력에 의미 화쟁위 중재 방식 실험대 올라
“종단 목표·방향 정하고 개입해야”
‘소도 역할 어디까지’ 숙제 남아

가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 위원장의 조계사 자진 퇴거 결정을 통해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들이 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닌 ‘소통과 대화’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소되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쉬운 점과 숙제도 적지 않다. 종단이 사회 문제를 개입할 시 명확한 대응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병력이 투입됐던 12월 9일 당시 조계사 관음전 원 안이 한 위원장이 피신했던 장소다. 한 위원장 피신 25일동안 불교계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 경찰과 민주노총을 오갔다. 사진=김주일 기자

매뉴얼과 가이드 라인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또한 화쟁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화쟁적 중재 방식이 이제 실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범용 스님은 “화쟁위가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해 종단을 대표해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할 능력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종단 산하에 능력 있는 연구소를 제대로 구성해 사회문제를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전문성과 시사적 식

견으로 독자적 대안을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니 ‘견지망월(見指望月)’식 접근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종단은 중요한 사회문제에 개입 시 종단 기능에 전문가를 더해 목표와 진행 방향을 결정할 후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0년대 이후 조계사가 맡고 있는 ‘현대판 소도’의 역할이다. 이에 대해

서는 앞으로도 불교계 안팎으로 많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2월 9일 발표한 한 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에 찬성하는 의견이 52.9%로, 반대하는 의견인 32.9% 보다 20%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2%의 국민들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실제 한 위원장이 피신했던 24일 간 보수단체뿐만 아니라 일부 신도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증용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연출됐다. 심지어는 조계사 신도회 일부 회원이 한 위원장을 직접 끌어내기 위해 위력을 행사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다. 2008년 광우병 시위 참여자와 2013년 박태만 철도노조위원장이 조계사에 몸을 기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범용 스님은 “법원으로부터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확인된, 정치적으로 억울하다는 피의자에 대해 조계사 등 도량을 도피처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며 그들 혹은 단체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불교, 종단적으로 접근할지를 명확하게 전문가들을 통해 가이드 라인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저출산’ 극복 위해 종교계가 뭉쳤다

종교지도자協 12월 8일
저출산 극복 선언문 발표
생명보호·차별 금지 노력
입양가정 위한 지원 사업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12월 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계가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장 자승, 이하 총지협)는 12월 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된 행사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축사, '저출산 극복을 위한 퍼즐맞추기' 등이 이어졌다.

총지협은 “지난 30년 간 지속돼 온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 활력을 저하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종교계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총지협은 “모든 생명과 가족이 존중되는 행복한 사회 모습을 널리 알

림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생명보호와 생명에 대한 차별금지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미혼모자·다문화가정·입양가정을 위한 지원사업 및 인식개선 노력도 확대할 것”이라 강조했다.

구체적 실천 내용으로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을 위한 사회문화 개선 △생명존중 사상의 전파를 통한 낙태방지와 자살예방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천도교 박남수 교령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과 황교안 국무총리, 방문규 차관, 김희정 장관 등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다양한 시각이 불교출판 미래의 희망”

불출협, 12월 10일 출판문화상 시상식

〈만해, 그날들〉 대상 수상

양질의 불서 보급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제12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이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불교출판문화협회 회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심사위원장 이병두 진흥원 사무국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서 총무원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올해 유난히도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불구하고, 좋은 불서들이 많이 출간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지홍 스님은 인사말을 통

해 “올해 후보로 추천된 92종 불서를 보면서 콘텐츠가 다양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시각으로 불교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우리 불교출판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자인 박재현 씨의 〈만해, 그날들〉과 우수상 〈불자로 산다는 것〉(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의 저자와 출판사에 대한 시상으로 진행됐다. 수상작은 또 〈보살지〉 〈분노를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훈민정음의 길〉 등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출판문화협회는 12월 10일 '제12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통문화사진 소장하고 계시나요? 디지털 아카이브로 그 가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폭넓게 간직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한국 전통문화사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전통문화사진을 감상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공익적 사업입니다. 한국전통문화를 함께 향유하는 큰 발판이 될 아카이브 구축에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 동참 안내 —

- 대상 |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사진 및 필름, 디지털 파일
- 유·무형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사진 / 예) 사찰, 명승지, 전통놀이, 세시풍속, 문화경관, 무속, 불교문화 및 문화재 등
- 근·현대 사료적 가치가 있는 사진
- 기타 대상에 포함되는 사진

원본사진은 최상의 디지털 파일로 만든 후 소유자를 명시해 등록하고 디지털파일을 포함하여 되돌려 드립니다.

● 절차

기증의사 접수 · 접수사이트 www.ktda.kr · 기증안내 및 자료조사상태, 가치 등	심의 및 인수 · 소정의 절차에 따름	아카이브에 등록 · 필요에 따라 디지털화 진행
---	-------------------------	------------------------------

문의 | Tel. 02)2011-1770, 접수 사이트 www.ktda.kr